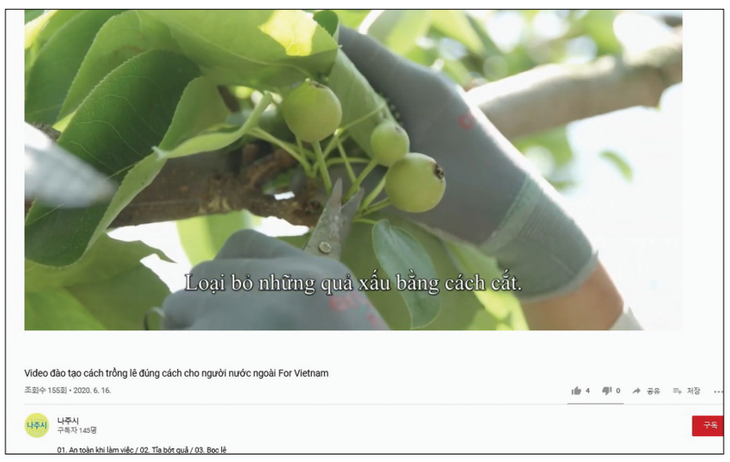
나주시, 외국인근로자 배 재배기술 동영상 본격 보급



市공식 유튜브 채널 게시…한국어 포함 5개국 내레이션-언어 자막

올바른 배 농작업 기술 보급… 고품질 배 생산 · 원활한 소통 기대

나주시는 과수농가 외국인 근로자의 기초 농작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배 재배기술 동영상'을 본격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배 재배기술 동영상은 한국어를 포함해 전국 최초 베트남 · 태국 · 미얀마 · 네팔 · 캄보디아 5개국 내레이션(자막포함)로 제작됐으며 나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검색-나주시)에서 시청하면 된다.

지난 3월 교재 발간에 이은 이번 동영상 제작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의 배 농작업 기술 이해도 향상에 따른 고품질 배 생산과 농장주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총 8분 분량의 동영상에서는 배 열매솎기, 배 봉지 씌우기, 농작업 안전 지침 등을 생동감 있게 설명한다.

시는 동영상을 교육용USB로 제작해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 나주배원협, 단위 농협, 나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급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재 발간에 이어 이번 동영상은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배 재배기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며 "올바른 기술 습득에 따른 고품질 배 생산과 나주배 명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나주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프라 확대에 대비해 내년도 영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3개국 언어로 된 동영상과 교재를 추가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배 · 사과 '가지 마름 증상' 보이면 즉시 신고하세요"

화순군, 과수화상병 예방 중요…위기단계 '경계'로 격상

화순군이 충청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농가에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확진 지역과 농가 증가, 전년 대비 발생 면적 등 확산 양상을 고려해 위기 대응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16일 현재 충남, 충북, 경기 지역 중심으로 전국에서 총 434농가(239.8ha)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진됐다. 이미 전년 전체 발생 면적을 훌쩍 뛰어넘었고 전북 익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2건이 확진돼 남쪽 지방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수화상병은 예방 백신, 치료제가 없는 데다 감염 경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과수 코로나', '과수 에이즈'로 불리는 세균성 전염병이다.

과수화상병은 잎, 가지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거나 붉게 변하며 말라가는 병으로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고, 한그루만 발생해도 과수원을 폐쇄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준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과수원 청결 유지 △과수원의 외부인 출입 제한 △출입 시 철저한 소독(사람 · 도구) △발생 지역과 인접 지역 또는 외국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지역의 접수△묘목 유입 금지 △병증 조기 발견을 위한 주 1회 이상 자가 예찰 등 과수 농가의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배 · 사과 재배 농가뿐 아니라 마당에 한두 그루만 있는 주민도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화순군농업기술센터(379-5423)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 농촌체험휴양마을서 '언택트 여행'으로 힐링

방문객 발열체크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철저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 곡성군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을 여행의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바깥나들이가 조심스럽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면서 조금씩 외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언택트(비접촉) 여행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한적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주목받고 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다른 여행자들과 일정거리를 유지하며, 접촉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힐링할 수 있다.

아울러 곡성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방문객에 대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곡성군 안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 자연환경과 국가지정 침실습지를 품고 있다. 다른 여행자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힐링, 전통, 체험 3박자를 고루 만족할 수 있는 언택트 여행 최적지다.

봄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꽃길에 눈이 즐겁다. 여름에는 목동제라는 저수지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수면에 비친 밤하늘의 별빛이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준다. 가을과 겨울에는 큰 일교차로 인해 강변에 물안개가 피어올라 몽환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체험거리도 다양하다. 과일농장 체험은 남녀노소 모두 즐기기에 적당하다. 재활용을 이용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보는 업사이클링 아트도 진행된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섬진강과 침실습지의 자연을 여유롭게 즐길 수도 있다.

폐교를 리모델링한 봉조 농촌체험휴양마을도 빼놓을 수 없다. 아이들이 떠난 곳이 체험마을로 변신하면서 다시 활기가 생겼다. 이곳에서는 TV에서만 보던 다양한 농촌을 직접 체험해보기에 좋다. 그래서인지 교육기관에서 많이 이용한다.

봄에는 모내기 체험이 가능하다. 아이들은 매일 먹는 쌀이 풀처럼 생긴 작은 모에서 자라난다는 것에 신기해한다. 여름에는 감자, 자두, 매실, 옥수수 등을, 가을에는 알밤, 고구마, 감 등을 수확해볼 수 있다. 더불어 밤 잼 만들기, 떡메치기, 고구마 핫도그 만들기 및 손수건 천연 염색, 천연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다.

편안하고 쾌적한 농촌 휴양을 원한다면 심청골 오산면에 있는 오지봉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제격이다. 최근 권역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만큼 리조트급 시설을 자랑한다.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함께 야영장, 숙박 장소 등 시골은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사라질 만큼 편의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 물론 농촌체험휴양마을인만큼 오지봉 마을에서도 계절에 따른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장성호 수변길, 새 이름 얻었다

네이밍 선정단 회의 왼쪽 '출렁길' · 오른쪽 '숲속길'

장성군이 장성호 수변길에 정식 명칭을 부여했다.

군은 네이밍 선정단 회의를 거쳐 옐로우 출렁다리와 황금빛 출렁다리가 있는 제방 좌측 길을 '출렁길'로, 새롭게 조성 중인 오른쪽 수변길의 이름은 '숲속길'로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다.

'출렁다리로 향하는 길'이라는 뜻의 출렁길은 끝없이 펼쳐진 호수와 시원하게 드리워진 나무 그늘 덕에 산과 바다의 매력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 또 완만한 경사로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에 좋다. 특히 2018년 옐로우 출렁다리에 이어 지난 6월 1일 개통한 황금빛 출렁다리로 인해 주말 평균 7000~8000명의 방문이 이어질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한편, 나무와 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오른쪽 수변길 '숲속길'은 벌써부터 명품 트래킹 코스로 입소문이 나 있다.